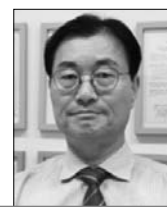


건강 칼럼

영양결핍과 비만의 양면성

2019년 말에 시작되어 해수 3년째인 올해 그 어려웠던 코로나의 긴 터널도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다. 일상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현상이 아주 다양하게 벌어졌다. 그에 따른 먹고 사는 문제도 좀 더 심화되어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분위기도 특세를 하였다.



이 윤 희 피스코 대표

최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 심사결정 건을 대상으로 발표한 최근 5년간(2017 ~ 2021) 영양결핍과 비만 진료추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현상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웠다.

1)연도별 2021년 영양결핍환자 수는 33만 5천여 명으로 2017년 14만9천명 대비 123.9%(연평균 22.3%) 증가하였고, 2021년 비만 환자 수는 3만 170명으로 2017년 대비 101.6%(연평균 19.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양결핍환자의 총 진료비(92억 4천만원)는 234억 6천만원)는 연평균 26.2% 증가하였고, 비만환자의

총진료비(6억2천만원)는 217억 2천원은 연평균 1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환자의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연령별 '영양결핍'에 대해 2017년 대비 10대는 181.6%(연평균 29.5%) 60대는 180%(연평균 29.4%) 70대는 124.9%(연평균 22.5%) 80대 이상은 150.9%(연평균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대하여 2017년 대비 10대는 263.2%(연평균 38.1%) 10대 미만은 205.9%(연평균 32.3%)로 대폭 증가하였다. 비만 환자 비중이 가장 많은 30,40대는 각각

59.8%, 80.4% 증가하여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갈수록 어린 연령층의 비만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성별 '영양결핍'의 경우 2021년 남성 환자 수는 8만 4천여 명으로 2017년 대비 113.6%(연평균 20.9%) 증가했고 여성의 경우 2017년 대비 127.4%(연평균 22.8%) 증가하였다.

주로 비타민D의 결핍환자수가 가장 많았고 여성환자의 경우 '식사섭취 감소결핍'이 남자보다 약 7.7배 많았다. 코로나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었고 그나마라도 자외선 차단크림 등 피부를 가리

는 경향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코로나19 유행 전·후 환자 추이 코로나 전후를 구분해 비교해보면 영양결핍 환자수 증가율은 코로나 유행 전 20.1%, 유행 후 31.8%로 코로나 유행 후 환자수의 증가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의 경우도 유행 전에는 2.9%였으나 유행 후에는 13.8%로 코로나 유행 후 비만환자수의 증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시절보다 일상에서 손 씻기,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고, 모임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이 실시되고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수준까지 되었다.

즉석식품, 배달음식 등 열량높은 음식의 섭취가 늘어나 비만이 증가되었고 면역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운동 등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기조가 일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 는 예측도 가능하다.

사설

미풍양속 계승하는 폼바 공연

전주매일신문이 후원한 '제1회 전국 폼바 명인전'이 최근 전주 한옥마을 중앙문광장에서 열렸다. 각설이타령은 장타령(場打令) 혹은 폼바(Pumba)타령이라고 한다. 각설이들이 주로 부르던 구전민요의 하나다.

삶의 애환이나 세태를 비판하는 가사와 흥겨운 가락이 특징이다. 각설이는 조선 후기 유민의 일종이며, 일명 장타령꾼이라고도 한다.

주로 지방 장터를 찾아다니며 문 앞에서 각설이타령을 부르며 구걸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각설이패는 규율과 서열이 엄격했으며, 구걸을 위해 소리 공부와 그 노랫말은 신재효의 '박타령'과 '별감쇠타령'에 접한다. 보통 각설이 타령은 각설이가 된 시연을 애절하게 풀어내는 신세타령이 있다.

박봉술의 흥보가는 "허질시구나 들어간다. 각설 춘추가 들어

간다. 어따, 요봐라, 순덕아, 이내 말을 들어 보라. 너그 부모가 너를 낳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 고우기나 곱게 길러, 삼간 초당에다 집을 짓고 독서 당에다 앉혔소."는 박봉술의 흥보가다.

열까지 숫자가 들어가는 단어 첫 자를 따서 가시를 풀어내는 숫자 타령도 있다. 노래의 사실에는 전대받던 유랑집단의 애환이 배어 있다.

지금도 거지들은 있으나 예전의 집단적 유랑 연예인으로서의 각설이패는 사라졌다. 전승되는 각설이타령은 "자란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로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가정과 사회가 편안해져야 한다. 앞으로도 약자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측면에서 폼바 공연이 기쁨을 주기 바란다.

강원특별자치도 바라보는 전북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자치권 부여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해당 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 과정이 완료된다.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명칭은 6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강원도 대전환을 위한 지방분권 보장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담고 있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조처할 책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했다.

제정 특례로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례 부여와 지원에서는 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

게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환경·산림 규제 등 중첩적 규제에 의한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고, 강원도 특성에 맞는 특단의 발전 방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염원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추진되지 못하다가 제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했다.

강원도를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전북에서도 여야 소속 구분 없이 진정한 협치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 뿐이다. 진정으로 모두 함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이다.

전북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국정 등 중앙 무대에서 전북 뒷을 챙기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전북도 이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전북도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벤 스틸러, 젤렌스키 만나 "당신은 나의 영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오른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키아우를 방문한 유엔난민기구(UNHCR) 친선 대사인 배우 벤 스틸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은 나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침수 도로 헤쳐 나가는 홍수 피해 주민들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미라 해안의 탄중 에미스 항구 마을에 민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침수된 도로를 헤쳐 나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